

파생어 형성과 빈칸*

최형용
(아주대학교)

Choi, Hyung-Yong. (2004). Derivational word formations and gaps. *Language Research* 40(3), 619-636.

In the process of word formation, there are gaps, which can be divided into accidental gaps and systematic ones. The former appear when certain words are possible to exist but they do not exist yet.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can be found for some reasons, which can be generally classified as 'phonological' and 'semantic'.

The gaps found for the semantic reason are connected with 'blocking', and the 'blocking' takes place among productive derivational word formations. Moreover, two words (or more) which have almost same meaning can occupy one gap without blocking each other. These phenomena furnishes the conclusive evidence that lexicon has abundant properties.

Key words: accidental gaps, systematic gaps, blocking, lexicon, abundant properties

1. 머리말

단어 형성의 기제(mechanism)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규칙(rule)과 유추(analogy)이다. 전자는 주로 생산적인 단어 형성 과정을 위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들은 제약(constraint)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는 생성형태론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이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단어들을 바탕으로 유사성에 기초한 추론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기제를 규칙이라고 믿든 아니면 유추라 생각하든 단어 형성이 규칙성(regularity)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단어 형성에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는 흔히 곡용이나 활용에서 보이는 어형변화의 양상과 흡사하게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제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빈칸(gap)의 존재이다. 본고는

* 본 연구는 황필상아주장학사업지원금으로 수행된 것임.

이러한 관점에서 단어 형성과 관계된 빈칸의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런데 빈칸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이유를 갖기도 한다. 그동안 단어 형성에서 체계적인 빈칸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 대표적인 현상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또 형성시킬 필요가 없다는 저지현상(blocking)이다. 본고는 우선 곡용이나 활용에서의 빈칸이 단어 형성의 그것과 가지는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파생어 형성과 관련된 빈칸을 우연한 것과 체계적인 것으로 나누고 특히 저지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궁극적으로는 어휘부(lexicon)가 잉여성(redundancy)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¹⁾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합성어 형성과 관련된 빈칸의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2. 체언의 곡용 및 용언의 활용에서의 빈칸과 단어 형성에서의 빈칸

체언의 곡용이나 용언의 활용에서도 빈칸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Bloomfield(1933, p. 233)의 ‘불완전 계열(defective paradigm)’이나 최현배(1937/1975, p. 348)의 ‘모자란 움직임(不具動詞)’²⁾는 모두 빈칸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들이다.³⁾ 그러나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보이는 빈칸은 체언의 곡용이나 용언의 활용에서 보이는 빈칸과 차이가 있다.

우선 ‘보충법(suppletion)’의 존재에서 이러한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체언의 곡용이나 용언의 활용에서는 패러다임을 완성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빈칸을 그대로 놔 두지 않고 설령 예측되지 않은 형식을 취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채우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충법은 빈칸을, 예측되지 않은 형태로 채우는 경우로 단

- 1) 본고의 잉여성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휘부의 등재단위와 관련된 것이다. 즉, 본고에서는 거의 동일한 의미 정보를 가지지만 다른 형식을 가지는 단어들이 어휘부에 함께 등재되는 경우를 통해 어휘부의 잉여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고는 어휘부가 잉여적인 정보까지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음운론에서 어떤 음소를 자질로 명세할 때 A라는 자질이 B라는 자질을 함의하게 되면 A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질의 잉여성과는 지향하는 방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2) 물론 체언과 조사의 결합에서도 빈칸이 존재한다. 그동안 크게 주목된 적이 없지만 다음에 보이는 대명사와 일련의 보조사와의 결합에서 보이는 빈칸이 이에 대한 예가 된다(최형용 2003b, p. 255).

	고	그	요	이	저	조
같이		그같이		이같이	저같이	
나마	고나마	그나마	요나마	이나마	저나마	조나마
대로	고대로	그대로	요대로	이대로	저대로	조대로
만	고만	그만	요만	이만	저만	조만
만치	고만치	그만치	요만치	이만치	저만치	조만치
만큼	고만큼	그만큼	요만큼	이만큼	저만큼	조만큼
야		그야				
야말로		그야말로				

어의 형성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기가 어렵다.³⁾

다음으로 체언의 곡용이나 용언의 활용에서는 하나의 칸(slot)을 두 개(혹은 그 이상)의 형식이 채우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⁴⁾ 그러나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곡용이나 활용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 준다.⁵⁾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단어의 형성은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논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⁶⁾ 그러나 단어의 형성이 패러다임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패러다임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⁷⁾

첫째, 체언의 곡용이나 용언의 활용이 패러다임을 완성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점에서 보충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체언의 곡용이나 용언의 활용이 보충법에 의해 패러다임을 완성할 수 없을 만큼 빈칸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굳어서 어휘화하여 단어의 형성으로 결과되는 경우가 존재한다.⁸⁾

- (1) 가. 가뜰애, 거미구애, 고락간에, 기왕애, 긴불긴간에, 단걸음애, 단걸애, 단김애, 단번애, 단숨애, 대번애, 뜻밖애, 묵연양구애, 밖애, 백주애(백췌), 양구애, 어동어서애, 어차간에, 어차어피애, 어차애, 영겁걸애, 연중애, 우환애, 울력김애, 이금애, 이에, 이왕애, 이차어피애, 이차어피애, 잘잘못간에, 저적애, 제물애, 제출물애, 제풀애, 죽밥간에, 창졸애, 채전에, 천만에, 천지에, 천하애, 하여간에, 한꺼번애, 한겹애, 한숨애, 흘지에
나. 고사하고, 공중대고, 대놓고, 들떼놓고, 마구대고, 무턱대고

-
- 3) 이러한 논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단어의 형성이 빈칸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혹은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갖게 한다.
- 4) 'croci'와 'crocuses', 'dreamt'와 'dreamed'와 같은 일종의 이중어(doublet)가 곡용 및 활용에서 하나의 칸을 두 개의 형식이 차지하고 있는 예가 될 수 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각각 불규칙과 규칙(혹은 비생산적과 생산적)으로 서로 대등하지 않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파생에서는 대등한 자격을 가지는 단어들이 하나의 칸을 차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 5)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어휘부가 잉여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6) 이것은 패러다임을 이른바 '어형변화표'와 동일시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파생을 포함한 단어 형성은 패러다임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 7) 특히 파생이 합성보다 패러다임과 연결되는 측면이 강하다. 곡용 및 활용에서의 패러다임은 국어의 경우 조사나 어미를 고정항으로 놓고 체언과 용언을 변화항으로 놓아 이들이 만나는 부분을 곡용형과 활용형이 채우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들에서의 조사나 어미의 역할을 파생에서는 접사가 담당한다. 그러나 합성에서는 이러한 고정항을 설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패러다임과 연결해서 언급된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 8) 이것이 빈칸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두 채워져야 하거나 아니면 모두 단어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가령 '공전의, 만강의, 모종의, 미증유의, 배전의, 본유의, 불굴의, 불요불굴의, 불세출의, 불후의, 소기의, 소경의, 유일의, 유일무이의, 일말의, 일종의, 저간의, 절호의, 천부의, 철천의, 초미의, 특단의, 특유의, 파죽의, 필생의'의 예들은 모두 [N의]의 구성만 보여 조사와 관련된 불완전 계열의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단어화한 것을 찾기는 힘들다.

(1가)는 불완전한 곡용을 하는 것들 가운데 단어화한 예를 보인 것이고 (1나)는 완전한 활용을 하는 것들 가운데 단어화한 예를 보인 것이다.⁹⁾

둘째, 패러다임을 일종의 틀(frame)로 생각한다면 단어 형성도 체언의 곡용이나 용언의 활용만큼 체계적이거나 생산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틀을 가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틀을 규칙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추로 보느냐 하는 데 적지 않은 논란이 있지만¹⁰⁾ 이 틀은 체언의 곡용이나 용언의 활용이 가지는 ‘규칙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파생과 관련된 틀은 가령 어떤 접미사와 결합하는 어기들의 후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어기와 결합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단어가, 어떤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의 후보가 있을 때 그 체언과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하는 모습과 평행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 결합의 과정에서 출력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빈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3. 우연적 빈칸 對 체계적 빈칸

이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어의 파생어와 관련된 빈칸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빈칸은 크게 우연적 빈칸(accidental gap)과 체계적 빈칸(systematic gap)으로 나눌 수 있다. 체계적 빈칸의 문제는 이른바 ‘저지(blocking)’의 문제를 포함한다.

3.1. 우연적 빈칸

우연적 빈칸은, 가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에 의해 생기는 공백을 말한다.

(2) 가. approval, proposal, transmittal, reversal

나. *derival, *confusal, *permittal, *conversal

9) 이들의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으려 한다. 최형용(2003b)에서는 이들을 기존의 파생어, 합성어와는 다른 통사적 결합어(syntactically combined words)로 다룬 바 있다.

10) 채현식(2000, p. 80)에서는 규칙과 유추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비교하고 있다.

	단어 형성 규칙	유추
구성	독립된 표상 + 연산	기존 단어 + 연산
적용방식	필수적, 자동적	수의적, 비자동적
제약	경계가 분명함(categorical)	경계가 다소 모호함(flexible)
생산력	매우 생산적	반생산적
표상	기호적 실체로 존재	따로 없다
기존단어와의 관계	기존 단어로부터 독립해서 작용	기존 단어에 근거해서 작용

채현식(2000)이 규칙에 대한 유추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시정곤(1999)은 유추에 대한 규칙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영어에서 (2)의 예들은 타동사에 접미사 ‘-al’을 첨가하여 추상명사를 만드는 경우 (2가)에서는 가능하지만 (2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런데 파생의 조건은 (2나)의 어기들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2나)의 단어들은 가능하지만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 된다.¹¹⁾

국어에서 우연적 빈칸을 보이는 것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전상범(1995, p. 2)에서 언급된 접두사 ‘맨-’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이다.

- (3) 가. 맨손, 맨발, 맨눈, 맨몸, 맨머리, 맨대거리, 맨정신, 맨입
- 나. *맨귀, *맨코

전상범(1995:2)에서는 ‘수술 후 할머니님 귀가 아주 밝아져서 이제는 맨귀로도 잘 들으신다/경험이 많은 기술자들은 맨코로도 미량의 가스 누출을 알아낸다’와 같은 문장을 들어 (3나)의 경우가 가능하지만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보고 있다.

다음의 경우들도 같은 맥락에서 우연적 빈칸이 발생하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 (4) 가. 움장이, 폐병장이, 증풍장이, *감기장이, *배탈장이, *두통장이
- 나. 울보, 먹보, *웃보
- 다. 바빠, 슬피, 어여빠, *아피, *고피
- 라. 재빨리, *손빨리, *약삭빨리

(4가)는 병명에 ‘-장이’가 붙어 ‘그러한 병을 앓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에 대한 예이다. 그런데 ‘감기, 배탈, 두통’ 등의 병명에는 ‘-장이’가 결합하지 않는다. (4나)는 동사어간에 ‘-보’가 붙어 ‘잘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의 예이지만 ‘웃-’에는 ‘-보’가 결합하지 않고 있다. (4다)는 ‘-브-’에 의해 형성된 형용사가 ‘-이’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여기에서도 ‘아프-’나 ‘고프-’가 ‘-이’와 결합하지 않은 것은 우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빠르다, 약삭빠르다’가 부사

11) 그러나 (2)의 경우를 ‘-ation’, ‘-al’ 접미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특히 다음의 (나)와 (다)와 같은 예들을 참고할 때 단순히 우연한 공백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것은 ‘permission’과 ‘*permittal’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만약 이들이 후술하는 저지(blocking)의 예가 될 수 있다면 (가)의 예들은 어휘부의 잉여성을 뒷받침하는 예들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가. approbation	approval
recitation	recital
proposition	proposal
나. derivation	*derivat
description	*describal
conversion	*conversal
다. *arrivation	arrival
*refusation	refusal
*rehearsion	rehearsal

파생 접미사 ‘-이’와 결합하지 않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연한 빈칸이 앞의 (2)-(4)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상관적인 양상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한다.

(5) 가. 뚱뚱이/뚱뚱보, 훌쭉이/*훌쭉보

나. 크기/키우다, 밝기/밝히다, 기울기/기울이다, 빠르기/*빨리다, 굵기/*굵히다, 세기/*세이다

다. 기다랗다/쫄따랗다, 굵다랗다/가느다랗다, 깊다랗다/*얕다랗다, 높다랗다/*낮다랗다

라. 멀리/가까이, *무거이/가벼이

(5가)의 경우 ‘뚱뚱보’에 비해 단순히 ‘*훌쭉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이것은 (4)의 경우와 평행한 예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뚱뚱이’와 ‘훌쭉이’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 예를 살펴보면 ‘*훌쭉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떤 상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의 경우들을 단독적인 빈칸이라고 한다면 (5가)의 경우는 상관적인 빈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5나)의 ‘빠르기/*빨리다, 굵기/*굵히다, 세기/*세이다’도 ‘크기/키우다, 밝기/밝히다, 기울기/기울이다’의 쌍에 의해 상관적인 빈칸을 보이는 예로 간주할 수 있다. (5다, 라)에서 ‘*얕다랗다, *낮다랗다’, ‘*무거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상관적인 빈칸이 된다.¹²⁾

빈칸의 문제로 귀결되지는 않았지만 우연적 빈칸이 파생과 관련되어 그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른바 ‘해돋이’류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6) 가. [[해돋이]; [[꽃꽂이]; [[벽걸이]

나. [[해]돋이]; [[꽃]꽂이]; [[벽]걸이]

우선 ‘해돋이’류 단어가 파생과 관련된다는 것은 이들 단어들의 직접 성분 분석을 (6나)가 아니라 (6가)와 같이 분석한다는 것이고 이들 단어들이 우연적 빈칸을 가진다는 것은 (6가)와 같은 분석을 따른다고 할 때 ‘해돋-, 꽃꽂-, 벽걸-’과 같은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우연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는 데에서 말미암는다.¹³⁾ 이러한 분석 방법 하에서는 ‘해돋-, 꽃꽂-, 벽걸-’ 등이 잠재어(potential

12) 본고의 상관적인 빈칸은 빈칸과 빈칸, 빈칸과 그 빈칸이 만약 어떤 단어로 채워진다고 할 때 그와 같은 유형을 보이는 다른 단어와의 상관성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어 형성에서의 빈칸의 존재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즉 단어 형성에서 필연적인 부분의 하나로 빈칸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우연한 빈칸이라 하더라도 서로 상관성을 포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확대하면 상관성이 입체적으로 파악될 수도 있고 화자에게는 빈칸을 채우려는 동기를 유발하여 단어 형성의 입력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13) (6가)의 분석법은 고재철(1992), 시창곤(1994), 김창섭(1996)에서 보이며 (6나)의 분석법은 연재훈(1986, 2001), 채현식(2000)에서 발견된다. 한편 최형용(2003b)에서는 이 두 가지 분석법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다.

word) 정도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잠재어는 그야말로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빈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truck-driver'와 같은 합성어도 가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to truck-drive'와 같은 중간 단계의 부재로 고민거리를 던져왔던 것이다.

3.2. 체계적 빈칸

단독적이든 상관적이든 우연한 빈칸은, 가능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에 의한 공백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에 비해 체계적 빈칸은 단어의 형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생기는 공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연한 빈칸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체계적 빈칸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체계적 빈칸을 나눌 때 음운론적 빈칸과 의미론적 빈칸으로 나누는 것도 빈칸이 발생하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체계적 빈칸은 가령 앞의 (2)와 연관된 영어의 다음 예들에서 보인다.

(7) 가. *promissal, *abandonal

나. *acceptal, *resistal

다. *judgeal, *rebukal

즉 타동사에 접미사 '-al'을 첨가하여 추상명사를 만드는 경우, 여기는 강세의 위치가 말미에 오지 않으면 (7가)와 같이 단어의 형성이 차단된다. 또한 어기의 말미에는 하나 이상의 자음이 와서도 안 되는데 이를 어길 경우 (7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어의 형성이 차단되는 것이다. 또한 (7다)는 어기의 마지막 자음이 [+ant]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어겨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국어에서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체계적 빈칸을 보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8) 가. 높이, 깊이, 넓이, *크이 ; 구두땀이, 젓먹이, 신문팔이, *양치이

나. 경사롭다, 위태롭다, 신비롭다, *고집롭다, *의심롭다

다. 끽끔거리다/끔끔대다/*끔거리다/*끔대다, 씹씹거리다/씹씹대다/*씹거리다/*씹대다, 땡땡거리다/땡땡대다/*땡거리다/*땡대다

(8가)는 척도명사 파생과 행위자명사 파생에 있어서 음절말이 자음인 경우에만 접미사 '-이'가 결합할 수 있고 모음일 경우에는 '-기'가 선택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8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어기가 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만 '-롭-'이 결합한다는 제약 때문에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롭-'이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시킬 수 없다.¹⁴⁾

14) '-롭-'은 '-스럽-'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관을 가지는바 이에 대해서는 저지현상에 대한 후술 부분에서 더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8다)는 음절수가 빈칸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거리-/-대-’ 파생의 경우 어기는 1음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1음절이 될 경우 이들은 반드시 반복형을 이루어 야만 접미사 ‘-거리-/-대-’와 결합할 수 있다.

한편 체계적 빈칸은 의미론적인 제약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9) 가. 높이, 깊이, 넓이, *종이/종기

나. 기다랗다, 굵다랗다, 널따랗다, *뽕다랗다

다. 불그스름하다, 기르스름하다, 길쭉스름하다, *달스름하다

‘종-’에 대해 척도명사 파생이 불가능한 이유는 ‘높-, 깊-, 넓-’과는 달리 그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송철의 1992, p. 22).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느냐 여부는 어휘적 속성을 나타내므로 이는 의미론적 제약 때문에 빈칸이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9나)의 ‘-다랗-’이 ‘*뽕다랗다, *검다랗다’와 같은 파생 어들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접미사 ‘-다랗-’이 ‘빛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어기로 삼지 못하기 때문이다. (9다)의 ‘-(으)스름하-’는 어기로 시각형용사만 취하고 그 밖의 미각형용사나 후각형용사 등은 어기로 삼지 않는다. 이들 역시 의미론적 제약이 관여한 빈칸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빈칸이 체계적인 이유를 갖고 그것이 의미론적 제약과 연관되는 경우 가운데 그동안 논의의 초점이 되어온 것은 저지현상이다. 이제 저지현상과 어휘부의 잉여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장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4. 저지현상

일반적으로 저지현상은 Aronoff(1976)의 다음과 같은 영어의 예를 통해 설명되어 왔다.

(10) 가. curious	*	curiosity	curiousness
various	*	variety	variousness
specious	*	speciosity	speciousness
나. glorious	glory	*gloriosity	gloriousness
furious	fury	*furiosity	furiousness
gracious	grace	*graciosity	graciousness

즉 (10)의 ‘Xous’ 형용사들은 명사 형성을 위해 단 하나의 칸만 가지고 있는데 이 칸이 이미 채워지면 다른 명사 형성이 의미론적으로 저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칸이 의미론적 제약 때문에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국어의 고유어 척도명사 형성에서 보이는 다음의 경우가 이와 평행한 것으로 언급될 수 있다.

(11) 가. 높이	*
길이	*
깊이	*
넓이	*
*	굽기
*	기울기
*	밝기
*	세기
나. 키	크기

현대 국어에서 접미사 ‘-이’는 척도명사를 파생시키는 데 있어 더이상 생산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척도명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기, *길기’ 등이 명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저지한다. 또한 (11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굽-, 기울-, 밝-, 세-’ 등이 가지는 척도명사의 빈칸은 ‘-기’에 의해 형성된 명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¹⁵⁾ 이들 가운데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은 당연히 ‘-기’이므로 이는 전형적인 저지현상의 예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11나)는 송철의(1992, p. 120)에서의 설명처럼 저지현상의 예외는 아니다. ‘키’가 ‘身長’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척도명사 ‘크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¹⁶⁾

그런데 저지현상에 대한 위의 설명들에는 좀더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하나는 Aronoff(1976)의 저지현상이 일종의 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glory’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gloriosity’의 형성이 저지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방향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curiosity’의 존재가 빈칸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Aronoff(1976)의 저지현상은 단순한 배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 점 Kiparsky(198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Kiparsky(1982)에서는 저지현상을 ‘동의어 회피 원칙(“Avoid Synonymy” principle)’으로 달리 명명하고 ‘어휘규칙의 출력이 기존의 어휘항목과 동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기존’이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역시 모종의 방향성을 전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¹⁷⁾

15) 이 때 ‘-기’와 후술하는 ‘-음’의 지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송철의(1992), 김창섭(1996) 등에서는 이를 접미사로 파악하고 있지만 송원용(1998), 최형용(1997, 2003b) 등에서는 이를 명사형 어미로 보고 ‘크기’ 등은 명사형 어미 결합체가 명사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술하는 부분에서는 단어의 형성이 결과된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어 논의의 편의상 ‘접미사’로 포괄하여 다루기로 한다.

16) 저지현상이 특히 의미와 관련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로 ‘하-, ‘답-, ‘되/롭-, ‘스럽’과 ‘的’의 배타적 분포를 들 수 있다. 김창섭(1996, pp. 181-190)에서는 이들 사이의 배타적 분포는 ‘的’ 파생어가 품사 범주로는 형용사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형용사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이들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저지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17) 또한 Kiparsky(1982)에서는 Aronoff(1976)의 저지현상이 파생어에만 국한된 것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동의어 회피 원칙을 통해 굴절형에서도 men, feet가 *mens, *feets를 저지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앞의 방향성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접미사의 생산성(productivity) 문제이다. (10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ity’에 의한 단어들은 ‘-ness’에 의한 단어 형성을 저지하지 못한다. 우선 Aronoff(1976)는 이에 대해 후자의 접미사는 생산성이 매우 높아(그의 말을 따르자면 ‘완전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 그에 의해 형성된 단어는 어휘부에 등재되지 않는 데 비해 전자는 생산성이 낮아 그에 의해 형성된 단어는 어휘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후자의 형성을 저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ness’에 의한 단어는 저지되는 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들을 보자.

(12) decent	decency	*decentness
aberrant	aberrancy	*aberrantness
profligate	profligacy	*profligateness

(12)는 Aronoff(1976) 자신의 것인데 ‘-ness’가 저지되는 데 대해 그는 접미사 ‘-cy’가 ‘-ness’보다 이들 특정 단어들에 더 생산적으로 첨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아울러 생산적으로 도출된 단어도 일단 사전에 들어가게 되면 의미표류(semantic drift)를 겪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전상범(1995, p. 259)의 지적처럼 저지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12)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안은 생산적인 접미사 사이에서도 저지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안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방향성이다. (10)과 (11)을 통해서 저지는 방향성을 가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때의 방향성은 ‘glory’나 ‘높이’와 같이 생산성이 없는 것이 ‘*gloriosity’나 ‘*높기’와 같이 생산적인 것을 저지하는 쪽으로 일어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12)에 대한 Aronoff(1976)의 설명은 더 생산적인 ‘-cy’가 덜 생산적인 ‘-ness’ 결합 단어들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¹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저지를 방향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점(先占)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생산성이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먼저 빈칸을 차지하는 것이면 다음의 단어 형성을 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안은 ‘glory’가 존재하는데도 ‘gloriousness’가 존재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또다른 해결안은 저지의 방향성은 인정하되 생산적인 접미사 사이에도 저지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생산성이 없는 것은 생산성이 있는 것을 저지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것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어의 다음의 예들은 생산적인 접미사 사이에서도 저지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18)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앞에서 ‘-ness’의 생산성을 ‘완전한 것’이라고 한 것과 모순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12)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작위적인 설명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3) 가.	*	걸음	*
	*	물음	*
	*	울음	*
	*	죽음	*
나.	풀이	*	*
	물이	*	*
	벌이	*	*
다.	*	*	달리기
	*	*	던지기
	*	*	쓰기

현대 국어에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이, -음, -기’에 의한 단어 형성은 저지현상에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다. 즉 이들은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저지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곧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생산적인 접사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저지현상을 확대할 수 있게 해 준다(송철의 1992, p. 123).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10)에서와 같이 ‘glory’가 존재하는데도 ‘gloriousness’와 같은 단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ronoff(1976)는 이에 대해 ‘-ness’ 접미사의 완전한 생산성 즉, 그에 의한 단어는 어휘부에 등재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지만 (12)와 같은 문제에 봉착한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저지의 주체가 되는 단어가 어휘부 안의 요소인지 아니면 어휘부 밖의 요소인지 하는 것이다. Aronoff(1976)는 어휘부에 생산적인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들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 즉, 규칙인 굴절형처럼 ‘glory’와 ‘-ness’만 존재해도 ‘gloriousness’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그 의미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gloriousness’를 다시 등재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며 잉여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은 어휘부의 등재소에 대한 생각은 Chomsky (1995, p. 235)에서 어휘부를 전통적인 의미에서 예외들의 목록(a list of exceptions)으로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적인 접미사 사이에서도 저지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휘부의 등재 요소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즉 저지는 이미 존재하는 단어가 새로운 단어의 형성을 막는 것이므로 생산적인 접미사 사이에서 저지가 일어난다면 이들 접미사에 의한 저지항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이미 살펴본 국어의 (13)과 같은 예들에서 찾을 수 있다. (13)의 ‘-이, -음, -기’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지만 서로 저지하고 있다. 또 이들은 생산적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

국어의 ‘-스럽-’과 ‘-롭-’도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우선 다음 예들을 보자.

- (14) 가. 가소롭다/*가소스럽다, 단조롭다/*단조스럽다, 공교롭다/*공교스럽다,
순조롭다/*순조스럽다 ...
나. *간사롭다/간사스럽다, *바보롭다/바보스럽다, *공포롭다/공포스럽다,
*억지롭다/억지스럽다 ...

(14가)의 경우는 ‘-스럽-’ 파생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고 (14나)는 ‘-롭-’ 파생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저지한다고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스럽-’과 ‘-롭-’의 경우는 (14)의 예와는 달리 두 가지 접미사가 모두 결합한 예들이 존재한다.

- (15) 경사롭다/경사스럽다, 낭패롭다/낭패스럽다, 다사롭다/다사스럽다, 여유롭다/여유스럽다, 명예롭다/명예스럽다, 변화롭다/변화스럽다, 보배롭다/보배스럽다, 상서롭다/상서스럽다, 수고롭다/수고스럽다, 신기롭다/신기스럽다, 신비롭다/신비스럽다, 영예롭다/영예스럽다, 영화롭다/영화스럽다, 예사롭다/예사스럽다, 요괴롭다/요괴스럽다, 인자롭다/인자스럽다, 자비롭다/자비스럽다, 자유롭다/자유스럽다, 재미롭다/재미스럽다, 저주롭다/저주스럽다, 초조롭다/초조스럽다, 평화롭다/평화스럽다, 폐롭다/폐스럽다, 풍아롭다/풍아스럽다, 한가롭다/한가스럽다, 혐의롭다/혐의스럽다, 호기롭다/호기스럽다, 호사롭다/호사스럽다, 호화롭다/호화스럽다

(15)의 예들은 하나의 빈칸을 별다른 의미 차이가 보이지 않는 두 개의 단어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단어들은 모두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간주해야 하며 어휘부는 그만큼 잉여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14)의 예들은 생산성의 측면에서 (13)의 경우들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스럽-’과 ‘-롭-’은 의미나 기능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생산성의 측면에서 차이를 가져 ‘-롭-’에 비해 ‘-스럽-’의 생산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15)는 원래 ‘-롭-’만이 가능했던 영역인데 ‘-스럽-’이 자신의 생산성을 늘려 가는 과정에서 ‘-롭-’ 파생어들을 침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송철의 1992, p. 209).

그러나 하나의 빈칸을 두 개의 단어가 차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15)에 대한 위와 같은 설명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매우 흥미로운 경우가 존재한다. 이것은 역시 어휘부가 잉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16) 가. 꿈지럭거리다/꿈지럭대다, 꿈틀거리다/꿈틀대다, 끄덕거리다/끄덕대다, 머무적거리다/머무적대다, 기웃거리다/기웃대다, 더듬적거리다/더듬대다 ...
- 나. *꺼칠거리다/*꺼칠대다, *몽게거리다/*몽게대다 ...
- 다. 흔들거리다/*흔들대다
- 라. *으스거리다/으스대다, *어기거리다/어기대다

(16)은 의미와 기능 면에서 매우 유사한 ‘-거리-’와 ‘-대-’ 파생어를 보인 것이다. (16가,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리-’, ‘-대-’에 의한 파생의 경우는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거나 두 가지가 모두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16다, 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리-’와 ‘-대-’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불가능한 것은 극히 일부의 예에 불과하다.¹⁹⁾ 즉 예외적인 (16다, 라)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거리-’와 ‘-대-’ 파생은 하나의 칸을 두 개의 단어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휘부는 잉여적일 수밖에 없다.²⁰⁾ 이제 (15)나 (16)과 같이 하나의 칸을 두 개의 단어가 차지하고 있는 예들에 대해 더 살펴보기로 하자.

- (17) 가. 가새지르기/가새지름, 낫올리기/낫올림, 내리기/내림
- 가'. 귀절기/귀절이, 다리밧기/다리밧이
- 가". 귀울음/귀울이
- 나. 고발인/고발자, 고용인/고용자, 국외인/국외자, 귀환인/귀환자, 낙선인/낙선자, 당선인/당선자, 대변인/대변자, 대표인/대표자
- 나'. 권력가/권력자, 기술가/기술자, 기업가/기업자
- 나". 경호원/경호인
- 나"''. 노무원/노무자

(17가, 가', 가")의 예들은 (13)에서 서로 지지한다고 언급한 ‘-이, -음, -기’에 의한 단어 형성 가운데 하나의 칸을 두 개의 단어가 차지하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17나, 나', 나"'')의 예들은 대체로 ‘~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한자 접미사 가운데

19) (16다, 라)의 예들을 통해서는 ‘-거리-’와 ‘-대-’가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가령 조남호(1988, p. 68)에서는 ‘-대-’ 파생어가 ‘-거리-’ 파생어보다 ‘적극적인 동작’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20) 어휘부가 잉여적이라는 본고의 생각은 지금까지 어휘부의 등재 단위와 관련된 ‘최소 등재’, ‘완전 등재’, ‘절충적 등재’의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완전 등재의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채현식(2000, pp. 14-25)에서는 이들 세 견해 가운데 완전 등재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로 지지현상을 들고 있다. 즉 지지하는 단어들은 등재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고의 (16)과 같이 생산성이 높은 단어들도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논하면서 어휘부가 잉여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Aronoff(1976)은 생산성이 높지 않은 접미사에 의한 단어는 어휘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절충적 등재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家’, ‘人’, ‘員’, ‘者’에서 중복되는 단어 형성을 보이는 경우를 든 것이다. (17)에서 보이는 접미사들은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높은 정도의 생산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15), (16)의 예들과 평행하게 다룰 수 있는 예가 된다.

(15), (16), (17)의 예들은 높은 생산성을 보여 주는 단어 형성이라는 점에서 절충적 등재 관점을 취하는 Aronoff(1976)에서는 어휘부의 잉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은 단어 형성에서도 위의 예들과 같이 하나의 빈칸을 두 개의 단어가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어휘부가 잉여적이라는 사실에 대한 또다른 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 (18) 가. 겹꾸러기/겹쟁이, 늦잠꾸러기/늦잠쟁이, 욱심꾸러기/욕심쟁이, 말쑤꾸러기/말쑤쟁이
 나. 게으름뱅이/게으름쟁이
 다. 극성멩이/극성쟁이
 라. 겁보/겁쟁이, 피보/피쟁이
 마. 난봉꾼/난봉쟁이
 바. 날파람둥이/날파람쟁이

(18)의 예들은 각각 ‘-꾸러기’, ‘-뱅이’, ‘-멩이’, ‘-보’, ‘-꾼’, ‘-둥이’에 의한 단어가 ‘-쟁이’에 의한 단어와 함께 하나의 칸을 공유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18)에서 보이는 접미사들의 생산성은 앞의 경우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므로 Aronoff(1976)의 견해를 취하더라도 이들은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휘부의 잉여성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18)의 예들과 관련하여 하나의 칸을 세 개의 단어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 (19) 가. 고집쟁이/고집통/고집통이
 나. 느림뱅이/느리팡이/느림보

앞의 예들이 접미사에 의한 중복적 단어 형성을 보여 준다면 다음의 경우는 접두사에 의한 중복적 단어 형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20) 가. 날가죽/생가죽, 날감자/생감자, 날고기/생고기, 날고치/생고치, 날곡식/생곡식, 날김치/생김치, 날된장/생된장, 날밤/생밤, 날벼락/생벼락, 날쌀/생쌀, 날아편/생아편, 날전복/생전복, 날콩/생콩
 가'. 날바닥/맹바닥
 나. 고소득/다소득
 다. 공걸음/헛걸음
 다'. 균기침/헛기침
 다". 균식구/잡식구

(20가)는 접두사 ‘날-’과 ‘生-’이, (20기)은 접두사 ‘날-’과 ‘맨-’이 하나의 칸을 두 개의 단어가 차지하게 하고 있고 (20나)는 접두사 ‘高-’와 ‘多-’가, (20다)는 접두사 ‘空-’과 ‘헛-’이, (20디)은 접두사 ‘군-’과 ‘헛-’이, (20디)은 접두사 ‘군-’과 ‘雜-’이 하나의 칸을 두 개의 단어가 채우게 하고 있다. 특히 (20가, 다, 디)는 고유어 접두사와 한자 접두사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들도 대부분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은 단어 형성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휘부가 잉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²¹⁾

이상의 논의를 두고 어휘부의 잉여성을 주장하기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은 존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등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른바 ‘준말’의 존재는 이러한 가능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 일반적인 준말의 경우 줄어들기 이전의 말과 줄어든 후의 말은 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단어들이 준말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준말로 바뀐 것들에 대한 정보가 어휘부에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의 차이만 명세되어 있는 준말들 사이의 의미 측면에서 잉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²²⁾

5. 맺음말

단어의 형성을 규칙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면 그 규칙에 의해 생성되는 단어들을 어휘부에 등재할 때 잉여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규칙성이 높은 단어 형성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규칙성이 높은 단어 형성의 경우에도 빈칸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대다수의 단어 형성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빈칸이 존재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빈칸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휴지(pause)의 존재가 단어 경계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는 것처럼 빈칸이 생긴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단어 형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빈칸의 존재

21) 하나의 칸을 두 개의 단어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 단어들은 서로 동의어(同義語)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미가 같은 것만을 중시하는 동의어와 본고에서 저지와 관련하여 살펴본 동의어는 구별되어야 한다. 가령 ‘생각’과 ‘인상’은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언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송철의(1992, p. 120)에서 ‘넓이:面積, 높이:高度, 세기:強度, 기울기:傾斜度, 밝기:明度’의 예를 들고 고유어 척도명사가 한자어 척도명사를 저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본 것은 서로 다른 단어 형성 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점에서 저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동의(同義)로 간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동의도 어휘부가 잉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 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22) 물론 형식적인 ‘줄어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줄어들’도 일률적이지 않고 또 모든 ‘줄어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희자(1997)에서는 형식의 줄어들음과 관련하여 ‘준말’, ‘준 낱’, ‘줄인 낱’, ‘줄어서 된 말’, ‘줄어서 만든 말’의 모두 다섯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본 바 있으며 최형용(2003a)에서도 ‘줄어들’을 통해서 줄기 이전과 다른 단어로 간주되는 것들을 ‘줄입말’로 간주한 바 있다.

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단어의 형성을 바라보고 빈칸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그 빈칸을 무언가가 채워주길 바라는 심정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빈칸은 그 자체로 단어 형성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어휘부의 지위를 보여 주는 적극적인 대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Aronoff(1976)의 저지현상은 빈칸에 대한 의미론적 제약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어느 정도 인정한 바와 같이 저지현상은 생산적인 접사 사이에도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의 주장과는 달리 생산적인 접미사에 의한 단어도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하나의 칸을 두 개의 단어가 차지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은 곡용이나 활용과는 구별되는 단어 형성의 독자적인 특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지현상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같은 사실은 오히려 어휘부가 잉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측면을 통해 어휘부는 그 나름대로 비경제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듯하다. 즉, 저지현상도 하나의 경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Scalise 1984, p. 157). 어휘부의 실체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경향은 어휘부가 예상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방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일치점을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빈칸의 문제를 주로 파생어에 집중한 바 있다. 이것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합성어에서는 고정항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합성어에서 빈칸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21) 가. 관계있다/관계없다, *계관있다/계관없다
나. 결판나다/결판내다/*결판짓다, *결정나다/*결정내다/결정짓다

(21)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있다’와 ‘없다’ 혹은 ‘나다’, ‘내다’, ‘짓다’와 같은 것들을 고정항으로 놓고 보면 이들과 결합하지 않는 것들을 빈칸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²³⁾

한편 파생어나 합성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빈칸의 예도 존재한다.

23) 물론 ‘*결판짓다, *결정나다, *결정내다’는 모두 통사적 구성으로는 가능하다.

- (22) 가. 길다/*갈다, 기름하다/가름하다, 길쭉하다/갈쭉하다
- 나. 넓다/*납다, 넓적하다/납작하다, 넓적스름하다/납작스름하다
- 다. 시다/*새다, 시큼하다/새큼하다, 시큼하다/새큼하다, 시금하다/새금하다
- 라. 쓰다/*싸다, 씹쓸하다/쌌쓸하다, 씹쓰름하다/쌌쓰름하다
- 마. 절다/*잘다, 절름거리다/잘름거리다, 절름발이/잘름발이
- 바. 흔들다/*한들다, 흔들거리다/한들거리다, 흔들흔들/한들한들

(22)의 예들은 이른바 내적 변화어에서 단어 형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언의 어간이 빈칸으로 존재하는 예들이다. 이러한 예들까지를 포함해서 단어 형성은 빈칸의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빈칸에 대한 연구는 단어 형성의 상관적인 포착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은 단어 형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 고 문 헌

고재설. (1992). ‘구두뒀이’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서강어문 8. 17-30.

김창섭. (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서울: 태학사.

송원용. (1998). 활용형의 단어 형성 참여 방식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53.

송원용. (2002). 국어의 어휘부와 단어 형성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송철의. (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서울: 태학사.

시정곤. (1994). ‘X를 하다’와 ‘X하다’의 상관성. 국어학 24. 231-258.

시정곤. (1999). 규칙은 과연 필요 없는가?. 형태론 1(2). 261-283.

안상철. (1998). 형태론. 서울: 민음사.

연재훈. (1986). 한국어 ‘동사성명사 합성어(Verbal Noun Compound)’의 조어법과 의미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연재훈. (2001). 이른바 ‘고기잡이’류 통합합성어의 단어형성에 대한 문제. 형태론 3-2. 333-343.

이희자. (1997). ‘준말’과 ‘줄어든 꼴’과 ‘줄인 꼴’. 사전 편찬학 연구 7. 19-42.

전상범. (1995). 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조남호. (1988). 현대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생산력이 높은 접미사를 중심으로-. 국어연구 85.

채현식. (1994). 국어 어휘부의 등재소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120.

채현식. (1999). 조어론의 규칙과 표시. 형태론 1(1). 25-42.

채현식. (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최현배. (1937/1975). 우리말본(다섯번째 고침). 서울: 정음사.

- 최형용. (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국어연구 148.
- 최형용. (2003a). '줄임말'과 통사적 결합어. 국어국문학 135. 191-220.
- 최형용. (2003b).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서울: 태학사.
- 황도생. (1991). 명사의 파생체계에 나타난 빈칸의 문제. 주시경학보 7. 140-149.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The MIT Press.
- Aronoff, M. (1994). *Morphology by Itself*. Cambridge: The MIT Press.
- Aronoff, M. and F. Anshen (1998). Morphology and the lexicon: lexicalization and productivity. in A. Spencer & A.M. Zwicky(eds.). *The Handbook of morphology*. Oxford: Blackwell. 237-247.
-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olt.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The MIT Press.
- Handke, J. (1995). *The Structure of the Lexicon*. Berlin: Mouton de Gruyter.
- Kiparsky, P. (1982). Word formation and the lexicon. F. Ingemann(eds.) Proceedings of the 1982 Mid-American Linguistics Conference.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t: Foris.
- Spencer, A. (1991). *Morphological Theory*. Oxford: Blackwell.

최형용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전자우편 : chy@ajou.ac.kr/mhoney@hanmail.net

접수일자 : 2004. 6. 1

수정본 접수 : 2004. 7. 21

게재결정 : 2004. 7. 27